

‘거장’ 백전우 광주에서 만난다

9월 3일 ‘유·스퀘어 그랜드 오픈 기념음악회’ 금호아트홀...쇼팽 ‘마주르카 17번’ 등 연주 을 연말까지 ‘노부스 콤팩트’ 등 공연 다채

지난 1992년 문을 연 광전동 고속버스 터미널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지난 2006년 유·스퀘어로 거듭났다. 이후 클래식 전용홀인 금호아트홀 등으로 구성된 유·스퀘어문화관을 오픈, 광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전반 위의 구도자’로 불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전우를 초청, ‘유·스퀘어 그랜드 오픈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9월 3일 오후 7시 45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백 씨가 지난 2008년 이후 7년만에 광주에서 갖는 독주회로 대극장이 아닌, 30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백 씨의 연주를 듣는 건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귀한 기회다.

만 10세 때 국립교향악단과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며 데뷔한 백 씨는 15세가 되던 해 도미, 줄리아드 음악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67년 나움버그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1969년 리벤트리 콩쿠르 결선 진출, 부조니 콩쿠르 골드 메달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백 씨는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과 ‘디아파 종상’, 프랑스 3대 음악상 등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또 ‘섬마을 콘서트투어’, ‘세월호 사고 100일 추모공연-백전우의 영혼을 위한 소나타’ 등을 통해 음악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폴란드 작곡가 쇼팽의 음악을 들려준

다. 폴란드 고유 무곡의 영향을 받아 작곡한 ‘마주르카 17번’, 빠른 전개로 고도로 숙련된 기교를 요구하는 ‘연습곡 c-sharp 단조’, 평소 존경하던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에서 자곡을 받아 작곡한 총 24개의 전주곡 전곡을 연주한다.

유·스퀘어는 호남과 타 지역을 잇는 교통 허브이자 문화와 쇼핑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9년에는 클래식 전용 공간인 금호아트홀(316석), 연극 전용 공간인 동산아트홀(243석), 미술전시회를 위한 금호갤러리가 갖추어진 복합 문화관을 개관했다.

특히 지역 유일의 클래식 전용홀인 금호아트홀에서는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손열음·권혁주 듀오연주회, 김다솔·김영옥 듀오 연주회, 트리오 제이드 등 다채로운 연주회가 열려 클래식 팬들을 즐겁게 했다.

올 하반기에도 20일 열리는 목관5중주팀 ‘뷰에르 앙상블’ 공연을 비롯해 서울대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이 이끄는 ‘바르투오지 앙상블’(10월 23일), 바리톤 김재일 동창회(12월 10일), ‘노부스 콤팩트 콘서트’(12월 17일), 풍당클래식과 함께하는 송년콘서트 등이 예정돼 있다.

또 동산아트홀에서는 그녀를 만지 마세요’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으며 매일 첫째, 셋째 토요일에는 ‘아름다운 아트마켓’ 행사도 열었다.

유·스퀘어는 최근 2중 주자장과 문화관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아와 무대를 만들고 1층과 2층에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하는 등 리노베이션 과정을 마쳤다. 이번 공연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전석 초대로 진행한다. 문의 062-360-843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예술아시안 22일 ‘광주 테마 4색 이벤트’

21일엔 국악방송예술단 공연도

광주대인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은 매달 격주로 열고 있는 ‘대인예술아시안’의 이색 프로그램인 ‘광주테마4색 이벤트’를 한다.

대인시장 주차장 옆 광장형쉼터에서 열리는 4색 이벤트는 전라도발 퀴즈대회, 광주마을공동체홍보전, 아트퍼포먼스, 어린이 체험존으로 구성됐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오는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아시안을 찾은 어린이 고학년 및 가족들을 위해 ‘어린이 체험존’이 마련된다. 팔찌 만들기, 공깃돌 만들기, 한지염색 작품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고무줄 놀이, 스피어더넛 대보기, 나도 슈퍼맨 포도, 전통 민속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오는 21일, 오후 8시에는 광주국악방송과 함께 국악방송예술단 공연도 펼쳐진다.

국악방송예술단은 이번 무대를 통해 드라마 OST, 영화음악, 재즈 등 구애 익숙한 명곡을 선사한다. 문의 070-8234-892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방송예술단

‘정비록’ ‘삼국사기’ 등 고전 포털서 본다

국립중앙도서관·다음카카오 업무협약

앞으로는 ‘정비록’ ‘삼국사기’ 등 우리 고전을 포털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주)다음카카오와 고서와 딱지본 소설 등을 ‘다음 백과사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20일 맺는다고 밝혔다. 국립도서관은 디지털화된 원문파일 900여건과 ‘잡지 창간호’, ‘세계인의 의서 동의보감’ 등 8개 테마의 디지털서고 콘텐츠를 다음카카오에 제공한다. 서비스는 다음 백과사전에 맞게 재편집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다. ▲박씨전, 춘향전과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고전소설의 1910년~1930년대 ‘한글판 딱지본 소설’, ▲1910년~1945년에 발간된 ‘잡지 창간호’ ▲교과서로 보는 시대별 교육 ▲세계인의 의서 동의보감 ▲교과부 김성환 화백의 시사만화로 보는 시대상 ▲삼국사기, 정비록과 같은 고전에서 살펴보는 한국의 시대별 전쟁사 ▲독도로 보는 우리역사 등 소장자료 디지털 원문을 활용하여 기획·구성한 8개의 테마 컬렉션.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달 말, 대학교수인 지인이 아름다운 호수와 화려한 무대가 어우러진 공연장 이미지를 카톡으로 보냈다. 붉은 석양을 배경으로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 보덴제 호수 위에서 펼쳐지는 야외오페라 ‘2015 브레겐츠 페스티벌’(7월 24일~8월 25일)의 한 장면이었다. “광주에서도 이런 멋진 무대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이란 메시지도 덧붙였다.

2년마다 새로운 작품을 한 달간 선보이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올해 레퍼토리는 푸치니의 ‘투란도트’. 축제기간 매일 6000여 개의 객

위해 공연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 각국의 극장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브레겐츠 & 잘츠부르크 라이브(Live)’는 클래식 애호가들의 지면을 넓히는 동시에 미래에는 이들을 축제 ‘현장’으로 불러들이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4일 메가박스 광주점에서 열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피델리오’ 공연은 이들 축제에 대한 국내 음악팬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인지 실감할 자리였다. 일반 영화에 비해 다소 비싼 3만 원의 가격에도 객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고 20~50대의 관객들이 고품격 오페라의 진수를 만끽했다.

아시아 예술극장 라이브 (Live)

석이 매진될 정도로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란다.

그녀가 브레겐츠 페스티벌을 부러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인 브레겐츠는 야외오페라 축제 하나로 매년 전 세계의 음악팬들을 불러 들인다. 세계 2차 대전으로 황폐화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945년 창설된 축제는 지역의 명소인 보덴제 호수에 오페라 무대를 띄우는 참신한 발상과 차별화된 콘텐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음악애호가들을 사로잡았다. 매년 축제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25만 명이 다녀가고 티켓 수입 570만유로(85억 원), 호텔과 상점이 벌어들이는 수익까지 합치면 2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자랑한다. 모차르트의 고향에서 열리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함께 오스트리아를 ‘떠어칠라’는 글로벌 브랜드로 불리는 이유다.

그뿐만이 아니다. 브레겐츠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하는 국내외 음악팬들을

상영 전 팸플라 가수가 들려주는 피델리오 오페라의 이야기, 클로즈업된 배우들의 생생한 표정과 한글 자막은 극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일까, 한 편의 실험극과 같은 150분간의 긴 공연이었지만 전혀 지루함을 느낄 수 없었다. 이날 기자와 함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감상한 일행들은 “내년엔 오스트리아로 날아가 현장의 감동을 느끼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극장을 나오는 길, 문득 오는 9월 4일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내 예술극장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봤다. 동시대 공연예술의 허브를 모토로 내건 예술극장의 개관축제 작품과 2015~2016시즌 프로그램을 관람하기 위해 관객들이 밀려들고 전 세계 현대공연 애호가들이 예술극장의 공연실황을 라이브중계로 즐기는 모습 말이다. 잠깐 동안의 상상이었지만 가슴이 설레었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조경래 ‘정글만리’ 100쇄 돌파 ... 판매 170만부 넘어서

소설가 조경래의 2013년 발표작 ‘정글만리’(전3권)가 출간 25개월 만에 각각 100쇄를 돌파했다고 출판사 해냄이 18일 밝혔다. ‘쇄’는 책을 새로 인쇄한 횟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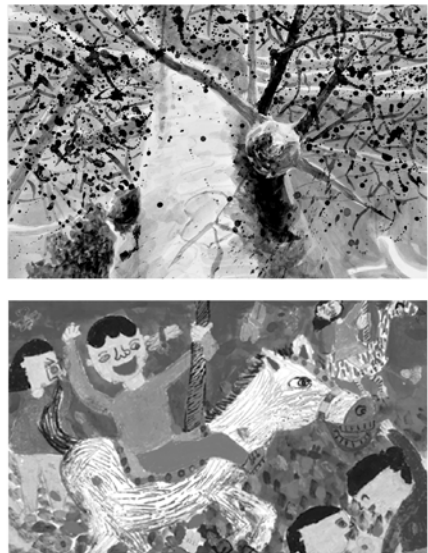
해냄에 따르면 2013년 7월 출간된 ‘정글만리’는 지난해 3월에 1권이 100쇄를 돌파했으며 최근 2권과 3권 모두 100쇄를 넘어서면서 3권을 합쳐 모두 320쇄를 기록했다. 책의 총 판매 부수는 170만 부를 넘었다.

중국을 배경으로 비즈니스맨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묘사한 ‘정글만리’는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흐름 속에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망해보게 했다.

현재까지 조씨 작품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이 통산 3850쇄를 기록했고 ‘정글만리’를 포함하면 책을 모두 4170만 권이 넘었다. /연합뉴스

호남예술제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자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미술부문 최고상 | 2006년 제51회-임슬기(비아중3), 김민희(광주여고2) | 2007년 제52회-조은지(전남중3), 김해주(광주여고2) | 2008년 제53회-김재현(일곡초2), 김민정(광주중앙초4), 신재민(광주중앙초5), 정소리(전남중3), 이은주(전남여고3) | 2009년 제54회-이호현(동림초2), 김세민(광주교대부설초3), 정은재(신암초5), 이주희(광주경신중2), 진재영(침단고2) | 2010년 제55회-김준서(마지초1), 임하리(순천남초2), 박지현(광주송원초3), 이세림(광주송원초6), 이기영(일곡중2), 박상아(광양제철중3), 노하은(여수여고2), 김다영(호남상곡고2) | 2011년 제56회-최원정(진남초1), 박가은(유덕초3), 이시우(매곡초5), 전혜주(광주북성중2), 범지선(수피아 여고2), 조아라(대성여고3) | 2012년 제57회-이예원(고실초1), 조은송(광주송원초3), 김민정(용두초5), 김민혁(정덕중3), 정윤미(살레시오여중3), 이인혜(광주여고1) | 2013년 제58회-성세경(금당초1), 권유선(광주계림초4), 정재윤(광주송원초6), 강민지(광주동성여중3), 정지윤(광주여고1), 박혜령(조대여고2) | 2014년 제59회-정윤실(광주송원초1), 김예린(광주계림초4), 정다연(운남초5), 정다연(대성여중2), 문지윤(정덕중3), 윤화인(전남여고2), 박혜령(조대여고3) | 2015년 제60회-김윤서(광주송원초2), 정요훈(정덕초3), 김민지(서광초3), 천마성(용두중3), 오승희(삼무고2), 박신영(광주여고2) 작문부문 최고상 | 2006년 제51회-김성희(광주팔곡초5), 박주연(동아여중2), 김지수(인천청량초3) | 2007년 제52회-조혜민(광주송원초2), 김하연(동아여중3), 정다윤(풍암고2) | 2008년 제53회-김민영(유안초4), 이주희(동아여중3), 한유나(대광여고2), 신미희(보문고3) | 2009년 제54회-최지윤(광주송원초1), 송시현(송의중1), 백지영(인양여고3) | 2010년 제55회-박동현(두암초4), 조은(광양동초4), 황현웅(광주송원초5), 김소연(동아여중2) | 2011년 제56회, 차진우(광주송원초6), 김민빈(경신여고3), 김민정(경신여고3) | 2012년 제57회-김남현(광주송원초4), 심현지(문정여고3), 차나연(삼일여고3) | 2013년 제58회-전유민(유덕초4), 손상원(광주삼육초5), 정소영(대성여고3) | 2014년 제59회, 이상재(광주송원초4), 박민우(광주송원초6), 류강희(여도중3), 선해경(금호중앙여고3) | 2015년 제60회-김지우(광주송원초5), 정지윤(동아여중3), 공해지(광주장덕고3) *수상당시 학교명과 학년을 표기하였습니다.